“상월결사, 붓다 정신 계승한 포교 · 수행법”

상월선원, 10월 15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세미나

문경=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행결사는 붓다의 정신을 계승하는 포교와 수행의 정당한 실천 방법이다.”(자현 스님)

“상월 결사는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읽혀진다.”(혜명 스님)

“만행결사는 역동적 ·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다.”(황순일)


자현 스님

혜명 스님

황순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월결사 의미 · 과제’ 주제 다뤄
천막결사, 도심포교 新모델 주목
만행결사, ‘순례 · 교육’ 모두 갖춰
‘중생에게 다가서는 불교’ 지향해

지난해 겨울 시작된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올해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 STX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 · 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이를 경청했다.

상월결사, 21세기 새로운 구법행

발제자로 참여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를 통해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라고 지적한 자현 스님은 고려불교를 변화시킨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2년 7개월 동안 고려에 머물며 무생계를 설한 지공선현의 일화를 예로 들고,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자현 스님은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선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라는 결사 운동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면서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한 현대불교의 획을 긋는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입재법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행결사에 대해서는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확인됨을 설명하고 순례의 가치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있다고 자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당나라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행의 특징을 교육과 순례에 있음을 상기시킨 자현 스님은 “현장의 인도 구법은 교학적 공부와 실천적인 성지순례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법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현 스님은 만행결사가 21세기 새로운 방식의 구법행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당나라의 현장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며 “만행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생 찾아가는 불교로 전환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모색하다’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이 보여준 일련의 결사들은 “기존의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닌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가 태동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생에게 유리(遊離)돼 중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중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600년 산중불교 프레임을 꼽았다. 또한 현대 한국불교가 타성에 젖어 산중불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상월결사는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내 비닐 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대중이 시끌벅적한 야단법석 가운데서 진행된 동중정(動中靜)의 새로운 결사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만행결사, 간디 소금 행진 연상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를 발표한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불교대학장)은 상월선원 일련의 결사들이 현대에 맞게 요구되는 변화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특히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황 교수는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상찬했다. 그동안 한국불교 재가자는 큰 사찰의 선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황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에 대해 1930년 ‘사띠야그라하’를 표방하고 24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과 연결된다고 봤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식민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로 시작해 행진이 끝날 즈음에는 동참자가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황 교수는 “간디의 소금행진은 정치 · 사회적 요구로 출발했지만,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고창신 결사운동… 통일순례로 확장을”

불교학자가 말하는 상월결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이 10월 15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개최한 ‘상월선원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발제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다채로운 의견들을 제시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상월결사가 내세우고 있는 ‘불교중흥 · 국난극복’ 캐치프라이즈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상월결사의 불교중흥은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는 선언이며, 국난극복은 한국불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봤다.

“상월결사의 태동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이라고 주장한 조 교수는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 이후 상월결사가 당대의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을 하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기룡


김용현


최성규


송일호


최응천


석길암


이병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월결사의 확장성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만행결사가 원만성취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비순례를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하는 것도 좋다”면서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했다.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상월결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한다. 이같은 고민은 한국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호 동국대 불자교수회장은 “‘중생에게 찾아가는 순례불교’라는 발표에 공감이 간다”면서 “자비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만행결사를 통해 떠오르는 것이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자 일연 스님이다. 모두 구법 순례를 통해 기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중흥,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도 일종의 구법행이다. 이에 동참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상월결사 자비순례를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든 질문이 ‘나는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였다. 이 같은 고민들은 발심과 변화의 시작”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순례길을 바라보는 불자들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한다”말했다.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은 자비순례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500km의 대장정을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동참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도반과 문중, 종단,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태우기도, 세상을 밝히기도 한다. 그런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

문경=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이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일은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佛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法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가칭)위례신도시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僧
· 불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 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체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